

한국오리협회 지회를 가다 충북도지회 신임 정기현 지회장



정기현
충북도지회 신임 지회장

본지는 전 월(11월호)부터 한국오리협회의 숨은 주역, 전국의 지회 소식으로 회원들을 찾아가고 있다. 한국오리협회 지회를 가다 제2부의 주인공은 지난 11월 16일 '2011 충북도지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지회장으로 선출된 충북도 신임 정기현(쌍구농장 대표) 지회장이다. 충북도지회 신임 정기현 지회장은 충북지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지회장으로 추대되어 만장일치로 선출, 2012년 2월부터 3년 동안 한국오리협회의 발전과 충북도의 오리산업을 위해 충북지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 그는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에서 3만수 규모의 쌍구농장 경영자이자 그간 한국오리협회 이사로서, 그리고 음성군지부장으로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정기현 신임 충북지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충북지회 사업방향 및 계획을 통해 그의 포부를 들어보았다.

한국오리협회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충북지회 지회장으로 선출된 정기현입니다. 항상 가까이에 있는 협회 회원분들께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려니 조금 쑥스럽네요.(웃음 하하하) 먼저, 추운 겨울날 안녕 유의하십니까. 해마다 겪는 겨울이지만 우리 오리농가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북방철새 이동시기에 따라 AI 집중방역기간이기 때문이죠. 특히 올해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 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매년 조사하는 '겨울철 조류 센서스' 결과에서 올해 10월 철새도래지분변 2,650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4건의 저병원성 A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야생조류 61마리에 대한 포획 검사결과 10건의 H5 항체 양성이 검출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주의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부에서도 지난 11월부터 농가별 책임자 지정제를 도입하고, AI가축과 접촉한 사람과 차량은 7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준비하고 있는
정기현 신임 지회장

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여러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리산업 발전을 위해 오늘도 분투하고 계신 모든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사업변장은 물론 건강이 늘 안녕하기를 기원합니다.

지회장이 된 소감

음... 먼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충북지회를 열과 성의로 이끌어 주신 정연우 지회장님과 마낙중이사님, 그리고 각 군 지부장님들을 비롯하여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네요.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축하와 격려 속에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책임감도 막중히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본격적으로 임기가 시작되는데, 남은 몇 개월 동안 충북지회장으로서 3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찬찬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현재 어떠한 부분이 미흡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웃음)



지회장 소감을 발표하고 있는 정기현 신임 지회장

충북지회는...

충북지회는 사무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지회장과 총무 즉 임원을 중심으로 청원, 충주, 음성, 진천 4개의 지부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사육, 부화, 계열·유통까지 약 120명 내외지만 한국오리협회 이사로서 그리고 음성군지부장으로 함께 하며 바라본 충북지회는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이 8년간 청정지역으로 유지돼 온 것은 우리 농가들이 하나로 단합된 속에서 차단방역이면 방역, 사육환경이면 환경 등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단합된 힘에는 협회 임원으로서 발 벗고 나서 준 정연우 지회장과 마낙중 총무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임원들이 그동안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더욱 단합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잘 수행하여, 더욱 더 발전하는 충북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도 내 오리산업의 현황

충청북도는 전국의 오리 생산량 11.8로를 차지(2010년 기준), 전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오리산업의 규모가 큰 지역이며 충북 축산의 핵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육농가는 '00기준 12,573호에서 '10기준 497호로 감소하였으나 오리사육두수는 '00기준 5,133천수에서 '10기준 1,697천



음성 설성문화제 오리고기 시식회 부스

이달의 인터뷰

정기현 충북도지회 신임 지회장



충북지회 총회에 참석한 모습

수로 급격한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전업농(5천수 이상)을 하는 가구들도 '00기준 34호에서 '10기준 129호로 발전했습니다. 정부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축산업 허가제의 정책과 함께 오리축사 환경 개선사업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축사에 한해 오리5천수 이상 사육농가에 객토 및 석회도포처리 비용의 50%를 지원(한도 6,000천원), 오리1천수 이상 농가에게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50%를 지원(호당 4,000천원)하

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북도내 오리산업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때로는 건의도 해가며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충북도의 오리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포부

앞으로 임기동안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중점은 회원들 간 화합과 단결, 그리고 권익보호라고 생각합니다. 도지회와 시군지부를 더욱 활성화 시켜 충북 오리농가들이 더욱 단합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아울러 회비납부와 오리자조금 활성화인데요. 오리산업은 임의 자조금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낸 만큼 협회의 사업이 운영되게 되어있습니다. 자조금은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비촉진 홍보사업과 교육 및 조사·연구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음성 실성문화제에서(정기현 신임 지회장, 임종혁 한국오리협회 부회장)

의무자조금인 양돈, 한우의 경우 자조금의 성공사례로도 꼽힐 만큼 자조금의 성과는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 회비 거출에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2012년부터는 회원들의 회비를 각 군지부장 책임 하에 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지회에서 중앙회로 올라가는 체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회비의 일부는 지회교부금으로 내려지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는 자조금으로 쓰입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냄으로써 권리를 다했을 때 각 지회가 발전할 것이고, 자조금사업에도 동참하면서 책임감은 물론 협회의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자조금의 의미와 쓰임 등 회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

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포부이기보다는 바람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충북에서 오리농장을 경영하고 또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북도가 지금처럼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충북도는 8년 연속 AI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축산농가들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중요합니다. 각 시군지부를 활성화하고 도지회의 모임을 정례화를 통해 '자기방역'이 최우선이라는 의식을 고취, 홍보활동에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회원에 바란다.

먼저, 경기침체로 오리고기 소비가 위축되어 많은 농가와 계열, 유통 모든 회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오리산업 종사자들이 하나로 더욱 단합하여 불황을 함께 타개해나갔으면 합니다. 마음 같아서 365일 오리산업이 늘 승승장구, 성장궤도를 달렸으면 좋겠지만 세계적인 경제상황이 상황인지라 분위기를 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흔들림 없이 피는 꽃은 없듯이 우리 오리산업 또한 지금보다 어려운 시기도 많았습니다. 2008년 AI당시 농장은 농장대로 가축을 매몰하고, 식당은 식당대로 줄지어 문을 닫았었죠. 그때만 생각하면 암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오리 산업은 축산업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단합의 힘이 실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뭉쳐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왔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조금이나마 긍정의 힘이 샘솟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육·부화·계열·유통 모든 분과가 함께 단합한 속에서 각자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오리산업 종사자들은 다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서로가 보듬고 간다면 우리 오리산업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욱 빛을 발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믿고 충북지회장으로 선출해주신 충북도 회원 여러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우리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협회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사업의 안녕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충북지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충북지회 총회에서 정연우 지회장의 모습



충북브랜드 전에서 도시대표창을 수상한 마낙중 총무